

220911 마 6:5-13 Xn Life 3. 주기도문

서 론>

기도를 요청하는 제자들

▣ 잘못된 기도(v.5-8)

✦ 온전면허 필기시험

1. 외식 - 사람에게 보이려고(v.5-6)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vs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2. 중언부언(v.7)

중언부언: 의미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하여 하는 것.

✦ 대표기도시간

▣ 온전한 기도(v.9-13)

✦ 성문종합영어, [수학의 정석].

주기도문의 구조: 3 - 3 - 3

- 1)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 우리 + 아버지
- 2) 당신의 기도: 당신의 이름 + 나라 + 뜻
- 3)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양식 + 죄사함 + 악에서 구원

1.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1) 아버지여

(1) 만물의 근원, 출발

(2) 친밀한 관계

2) 하늘에 계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분

3)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ex) 아담과 하와, 삼위일체, 두세 사람이...

2. 당신의 기도

1)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 =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것. 이름 값에 맞는 대접을 한다는 말.

파스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나라

나라 = 국민 + 영토 + 주권. 즉, 하나님의 나라 =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

눅 17: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3) 뜻

갯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예수님(막 14:36)

✚남북전쟁때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3. 우리의 기도

-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 죄 용서에 대한 기도 =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께
-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도 = 세상 끝날까지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

1) 일용할 양식(v.11)

- (1) 육체적 필요 - 밥, 떡
- (2) 정신적 필요 - 좋은 인간관계(친구, 스승, 가족), 서적, 환경(학교, 직장)...
- (3) 영적 필요 - 신앙공동체, 기도, 말씀, 예배의 환경....

2) 죄 용서(v.12)

용서 = 빛의 탕감 = 헬. 아피에미 = 먼지로 만들어 날려버린다, 땅을 파서 보이지 않게 묻어버린다는 의미.

용서해야 할 이유:

- (1)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
- (2)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죽는다. ⇒ 원망과 분노
- (3)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마 18:22)

3) 악으로부터의 구원(v.12)

일용할 양식: 오늘을 위한 기도(현재),

죄 용서: 어제의 일을 위한 기도(과거),

시험, 악: 내일을 위한 기도(미래)

✠소주잔의 비밀

결 론>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쓰인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제목의 기도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